

포위공격인가? 상방인가?

—사진 한장에서 밝혀진 진상



1999 년 4 월 25 일, 만여명 파룬궁학원들이 북경국무원래신래방사무실에 상방하러 갔다. 중공 총서기였던 강택민은 몰렘치하게도 이 “4,25”상방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라고 떠들면서 파룬궁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다.

윗사진은 그당시에 찍은 사진이다. 독자들, 곰곰히 생각해 보시라. 중남해의 담벽은 짙은 붉은 색인데 늘어선 사람들의 뒤에 있는 담벽은 회색이다. 이 어찌 중남해를 포위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중남해를 포위공격한 정치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레 경찰들이 이렇게 한가로히 서있을 수 있겠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글을 읽고 있는데

그레 이것이 포위공격이란 말인가?

파룬궁학원들이 왜 “4,25”상방을 하게 되었는가? 1999 년 4 월 11 일, 하작휴(何祚麻)가 “청소년과학기술박람회”잡지에 파룬궁을 모함하고 공격하는 문장을 발표했다. 4 월 18 일부터 24 일까지 일부 천진시파룬궁학원들이 천진교육학원과 유관부문에 가서 실제정황을 반영했다. 4 월 23 일과 24 일에 천진시공안국 경찰들이 파룬궁학원들을 구타하고 45 명을 붙잡아 가두었다. 파룬궁학원들은 이 정황을 천진시정부에 알렸다. 정부에서는 북경에 가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4 월 25 일에 파룬궁학원들이 자발적으로 북경 국무원 래신래방 사무실로 왔다. 사람이 많아서 신방사무실주위의 부우거리와 서안문 대거리까지 모이게 되어 중남해부근에 접근하게 되었다. 그날 국무원 총리 주용기(朱鎔基)가 직접 파룬궁학원을 만나 현장에서 파룬궁대표와 대화하여 폭력으로 사람을 붙잡은 천진사건을 합리하게 해결했다. 저녁에 학원들이 헤어질때 땅에 파지 한장 없었고 경찰들이 던진 담배꽂초마저 주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4.25’ 상방은 중국력사상 가장 이성적이고 전면적인 대규모의 상방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부다페스트영웅광장에 모여 연공하고 있는 파룬궁학원들



지난 4 월 11 일 오후, 헝가리 파룬궁학원들이 부다페스트영웅광장에 모여

상서롭고 우아한 5 조 공법을 펼쳐보였고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박해를 폭로했으며 이 박해를 공동히 제지할 것을 민중들에게 호소했다.

토론토부활절시위행진에 참가하여 찬양을 받은 천국악단



지난 4 월 12 일 오후 2 시, 캐나다파룬궁천국악단은 토론토부활절시위행진에 참가하여 관중들의 찬양을 받았다. 천국악단이 이르는 곳마다 관중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죄없는 내 손녀를 석방하라!》



지난 2 월 25 일 오후 3 시, 광동성강문시 파룬궁학원 량옥진(梁玉珍)은(오른쪽 사진) 진상 자료를 배포하다가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학산간수소에 강금되었다.

4 월 4 일,북경시변호사 당문전과 리춘부는 누구도 보살펴줄 사람이 없는 백세 할머니의 위탁을 받고 학산간수소에 가서 량옥진과 면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분개하여 친히 학산간수소로 찾아가서(왼사진) 《죄 없는 내 손녀를 석방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간수소 악경들은 감히 나서지 못하고 저마다 책임을 회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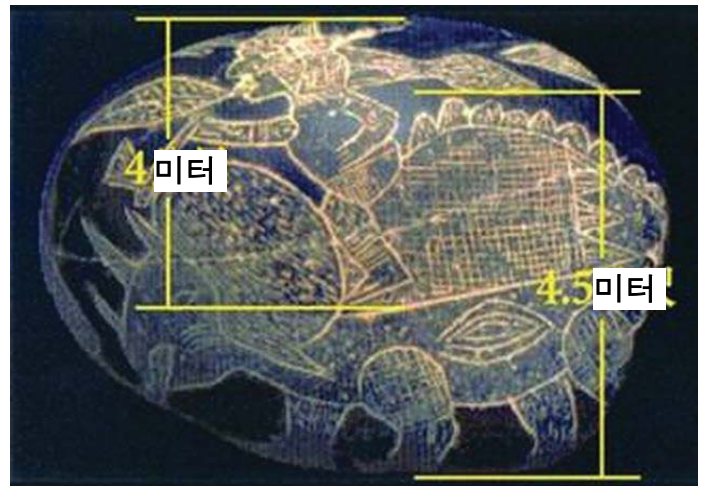
변호사의 질문에 말문이 막힌 재판장

지난 3 월 26 일 오전, 하남성정주시중원구법원에서 파룬궁학원 왕보화, 류위, 주운룡 등 10 여명을 불법심판했다. 류위와 왕보화는 법정에서 《악경들이 우리들에게 족쇄와 수갑을 채운후 네댓 시간 공중에 매달아놓고 강요된 자백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알렸다. 법정에서 리위가 상처를 입어 불구가 된 사지를 보였다. 변호사는 모든 공소인들에게 《그들은 왜 사지가 불구가 되었는가?》고 질문했다. 공소인들은 《수갑과 족쇄를 채운 시간이 너무 오래기 때문이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법정에서 《형구는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징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형구를 채웠다해서 불구가 되는가? 그러니 원고는 형법을 위반했기에 응당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법정에서 제기했다. 법정 재판장은 난처하여 얼굴을 찡그리며 아무말도 못했다.

한 경찰대장의 명령

산서성태원시 모 경찰대장은 파룬궁진상을 요해하고 대무회의에서 《우리들은 공무를 집행할 때 파룬궁학원들이 소책자를 나눠주고 전단지를 붙이는것을 관계하지 마시오. 일단 관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시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610”들이 소란을 피워낼 것이요.》라고 강조해 말했다.

공룡을 탄 병사가 새겨져 있는 100 만년전 화석



페루 나스카평원 북부 이카의 작은 마을에 돌박물관이 있다. 이 돌박물관에는 우주성계, 고대동물, 사전대륙 등 1 만여개 도안을 새긴 신비한 돌이 있는데 이것을 “이카석각”(伊卡石刻)이라고 한다. 이 이카석각의 산굴 부근에 몇 백 년전 생물화석이 가득한데 그중 공룡을 탄 병사를 새긴 화석(왼사진)을 보면, 사람과 공룡의 몸체는 대단히 큰 차이가 없으며 공룡은 사람들이 기른 가축이거나 길 들인 동물 같다. 그외 석각에는 기관이식수술, 수혈, 만원경, 의학기계, 공룡을 붙잡는 사람 등 현대과학이 해석하기 어려운 정경들이 그려져있다.

현대교과서에서는 인류문명시기가 1 만년도 안 된다고 써여져있다. 그렇다면 수 백만년전에 사람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이카석각의 도안에서 매우 선진적인 사전문화(史前文化)를 그대로 볼수 있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4 월 15 일 오전 6 시, 연길시파룬궁학원 최홍화(崔红花)는 집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컴퓨터와 프린트를 빼앗겼다.

■ 지난 4 월 15 일 오전 8 시, 연길시파룬궁학원 황미화(黃美花)는 집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컴퓨터와 프린트를 빼앗겼다.

■ 지난 4 월 16 일 오후 4 시, 연길시파룬궁학원 김영애(金英愛), 지영숙(池英淑)은 집에서 악경들에게 랍치되고 컴퓨터와 프린트를 빼앗겼다.

■ 지난 4 월 16 일, 룡정시파룬궁학원 영단(英丹)은 악경에게 랍치되었다.

